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41

한글 성명: 팜 옥 탄 타오

설렘의 설탕
나는 빵을 좋아한다. 빵 만드는 것을
좋아하기도 하고 먹기도 좋아한다. 열두
살 때에는 같은 댄스 동아리 친구의
집에서 난생처음 빵을 만들었다. "나의
강점이 뭐가?" 라고 고미했던 소녀는
그때의 나였다. 나의 강점은 찾기 위해
춤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도전해 본
적이 있었다. 빵을 처음 만들었을 때
너무나도 설레고 즐거워서 빵 만들기를
스스로 공부하기로 했다. 내가 저축한
돈으로 처음 산 가장 비싼 물건, 그것
은 바로 오븐이었다.
중학교 때에는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
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빵은 컵케이크
였다. 나는 친구들에게 네 개를 한 세
트로 팔기도 했다. 자전거의 바구니에
귀여운 컵케이크 박스를 놓고 크림이
흐트러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전거를 탔다.
지금 그 때를 떠올려 보면 자전거 체인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41

한글 성명: 팜옥탄 타오

의 배걱배걱 하느 소리가 들리는 것
같다. 눈부신 햇살 아래 더위와 싸워가
며 자전거를 타던 기억과 나의 한껏
설렘 마음은 지금도 생생하다.
중학교 졸업반 때, 한번에 비스켓을
200개나 만들었다. 특별한 이유는 없었
다. 비스켓 네 개를 조그만 주머니에
넣어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물했다.
웃긴 것은 한 시간 후에 그 비스켓이
다 굳어버렸다는 것이다. 그래서 친구들
은 내 비스켓에 '공룡화석' 이라는 이
름을 붙여주었다. 창피함보다는 오히려
행복, 그리고 설렘이 느껴졌다. 사랑하는
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, 내 친구들이
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, 소중한 추억
들을 남기는 것, 이 모든 것이 나를
설레게 하는 사소한 것이다.
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.
사실 나는 빵을 잘 만들지 못한다는
것이다. 공룡화석과 흡사한 비스켓 정도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41

한글 성명: 팜 옥 탄 타오

를 맛 들어 내 뽀 이 었 다 . 그 쥬 다 면 내 컵
 케 이 크 를 얼 마 나 많 이 팔 렸 을 지 궁 금 한
 사 람 도 있 을 것 이 다 . 나 는 시 내 에 서 벗
 어 난 도 시 외 관 에 살 았 었 다 . 댄 스 동 아
 리 는 시 내 에 있 었 는 데 , 그 곳 까 지 는 한
 시 간 이 상 이 걸 렸 다 . 그 래 서 나 는 시 내
 에 서 파 는 컵 케 이 크 와 비 슷 한 스 타 일 과
 맛 이 나 는 컵 케 이 크 를 만 들 었 다 . 친 구 들
 은 신 선 하 고 맛 있 는 내 컵 케 이 크 를 중
 아 했 는 데 , 특 기 가 격 이 몇 천 싸 서 터
 쥬 아 했 다 . 돌 이 려 생 각 해 보 니 그 어 린
 나 이 에 나 를 섣 레 게 하 는 것 , 나 를 무
 언 가 열 정 적 으 로 하 게 하 는 것 , 그 것 은
 바 로 내 오 픈 과 함 께 빵 만 들 기 였 다 .
 항 상 공 부 때 문 에 스 트 레 스 를 받 고 삼
 의 목 적 에 대 해 고 민 했 던 그 때 의 나 에
 게 이 취 미 를 찾 을 수 있 는 것 이 인
 생 의 큰 낙 이 였 다 .
 과 거 의 나 는 오 늘 의 나 보 다 더 달 금
 한 사 람 이 었 던 것 같 다 . 컵 케 이 크 를 만

제 8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SA1141

한글 성명: 팜 옥 단 타오

들		때	는		생	각	보	다		만	은		설	탕	이		들	어	간	
다	.	나	는		그		지	나	치	게		설	탕	처	럼		면	경	이	
꽤	나		지	나	친		4	랑	이	였	다	.	직	접		만	든		컵	
케	이	크	를		학	교	에		팜	기	도		하	고	,	한		번	에	
비	스	켓		20	0	개	를		만	든		사	랑	이		빠	로		나	
였	다	.	하	지	만		세	월	이		홀	러		빠	빠		일	상		
때	문	에		어	는		때		나	는		빠	방		만	들	기	를	그	
만	두	었	다	.	일	상	생	화	을		하	다		보	면		짜	증	나	
고		힘	든		순	간	이		분	명		있	을		것	이	다	.	산	
면		산		누	족		사	는		것	이		더	욱		어	렵	고		
힘	든	게		느	끼	질		때	도		있	을		것	이	다	.	어	릴	
때		그	런		순	간	이		오	면		나	는		빠	방		만	들	고
나	는		그		설	럼	에		빠	져		힘	이		다	시		난		
것	이	다	.	그		설	럼	과		달	콤	함	을		다	시		찾	고	
싶	다	.	그	리	고		이	번	에		꼭		'	공	룡	화	석	'	을	
만	들	지		안	고		'	역	대	급	'	맛	있	는		비	스	켓	을	
만	들	것	다	고		결	심	한	다	.										